

## 1.글로벌 채권

- \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전망으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감에 따라 하락
- \* 국채가, 대선을 앞둔 경계로 거래가 많지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 기대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하락 출발
- \* 미국의 지난 9월 채용공고가 호조를 지속하고, 하락 출발한 뉴욕증시가 반등하자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져 국채가 낙폭이 더 확대
- \* 오후 들어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다는 소식을 반영해 뉴욕증시 상승 폭이 커지는 데다 3년물 입찰에서 약한 수요가 확인되자 국채가 낙폭 추가 확대
  - 美 재무부, 이날 240억달러 어치의 3년만기 국채 연 1.034%에 발행...입찰 수요 강도를 측정하는 응찰률 2.69배로 최근 평균 2.82배 하회

### [미국]

|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|
| 2y  | 0.85% | (+3.6bp) |
| 5y  | 1.33% | (+4.1bp) |
| 10y | 1.86% | (+3.2bp) |
| 30y | 2.62% | (+1.5bp) |

### [기타 10Y물]

|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영국   | 1.23% | (+3.4bp)  |
| 독일   | 0.18% | (+3.4bp)  |
| 프랑스  | 0.49% | (+3.4bp)  |
| 이탈리아 | 1.72% | (+1.5bp)  |
| 스페인  | 1.25% | (+1.1bp)  |
| 그리스  | 7.10% | (-12.9bp) |

## 2.글로벌 증시

- \* <뉴욕 마감>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이 우세하다는 전망에 2거래일 연속 상승
- \*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출발... 하지만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 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상승 반전
  - 에너지주가 소폭 하락한 것 외에 유틸리티와 통신, 기술, 부동산, 금융 등 전업종 강세
- \*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시장 '공포지수'도 내림세로 전환

-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(VIX)는 전 거래일보다 1.82% 내린 18.37

\* 긍정적 美 경제지표

- NFIB 10월 소기업 낙관지수, 전월 94.1에서 94.9로 상승해 올해 가장 높은 수준 기록
- 9월 채용공고(job openings), 전월 545만명에서 549만명으로 소폭 상승

\* <유럽 마감>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우려감 줄어들며 이틀째 상승세

\* <상하이 마감> 달러 기준 수출이 7개월째 부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감소에 소폭 상승...중국 기준 지난 1월 이후 10개월래 최고치

\* <도쿄 마감> 미국 대선결과 앞두고 경계감에 보합 마감

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DOW30     | 18332.74 | (+0.40%) |
| NASDAQ    | 5193.49  | (+0.53%) |
| S&P500    | 2139.56  | (+0.38%) |
| NIKKEI225 | 17171.38 | (-0.03%) |
| SHANGHAI  | 3147.89  | (+0.46%) |
| FTSE100   | 6843.13  | (+0.53%) |
| DAX30     | 10485.32 | (+0.24%) |
| CAC40     | 4476.89  | (+0.35%) |

### 3.글로벌 환시

\* 달러화,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대비해 구축했던 포지션이 뒤집힌 여파로 상승

- 멕시코 페소 가치,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날 2%에 이어 또 다시 1% 이상 급등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유로/달러  | 1.1014                        | (-0.0030)  |
| 유로/엔   | 115.77                        | (+0.37)    |
| 달러/엔   | 105.10                        | (+0.62)    |
| 달러/위안  | 6.7817                        | (+0.0092)  |
| 파운드/달러 | 1.23692                       | (-0.00346) |
| NDF    | 1128.00 / 1129.00원...6.75원 하락 |            |

### 4.글로벌 상품

\* <국제 유가> 미국 대통령 선거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에 주목한 가운데 강보합

\* <국제 금값>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락

WTI 44.98 (+0.2%)

COMEX금 1274.50 (-0.4%)

## 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03.38 (+0.29%)

코스닥 624.19 (+0.32%)

원/달러 1135.00 (-8.10)

KTB 110.35 (+0.01)

LKTB 130.00 (+0.11)

## 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\* 국고채 금리, 미국 대선 결과를 하루 앞두고 소폭 하락 마감. 새 국제회계기준(IFRS4) 2단계 도입과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장기물 매수 유입.

CD(91d) 1.3900% (0.00bp)

1y 1.4190% (-0.20bp)

3y 1.4250% (-0.10bp)

5y 1.5140% (-1.10bp)

10y 1.7020% (-0.50bp)

20y 1.7980% (-0.90bp)

30y 1.8210% (-1.20bp)

50y 1.8120% (-1.20bp)

## 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7.90bp (-0.05bp)

2Y -9.95bp (+0.30bp)

3Y -9.00bp (+0.10bp)

5Y -11.65bp (+0.10bp)

10Y -18.20bp (-0.75bp)

## 8. IRS/CRS 동향

\* IRS,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하며 소폭 하락 마감. 장 중 국채선물 변동성으로 5년물 이하 구간에서 거래가 잦았고, 증권사 위주로 페이 물량이 많았음.

\* CRS,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. 커브 스티프닝.

### \*IRS 금리

|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1Y  | 1.3450% | (-0.25bp) |
| 2Y  | 1.3275% | ( 0.00bp) |
| 3Y  | 1.3350% | ( 0.00bp) |
| 5Y  | 1.3975% | (-1.00bp) |
| 7Y  | 1.4500% | (-1.00bp) |
| 10Y | 1.5200% | (-1.25bp) |

|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*2Y  | -1.75 | (+0.25bp) |
| 2*3Y  | 0.75  | ( 0.00bp) |
| 2*5Y  | 7.00  | (-1.00bp) |
| 3*5Y  | 6.25  | (-1.00bp) |
| 5*7Y  | 5.25  | ( 0.00bp) |
| 5*10Y | 12.25 | (-0.25bp) |

### \*CRS 금리

|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1Y  | 1.0300% | (-0.50bp) |
| 2Y  | 0.9500% | (+1.00bp) |
| 3Y  | 0.9300% | (+1.50bp) |
| 5Y  | 0.9200% | (+2.00bp) |
| 7Y  | 0.8950% | (+3.50bp) |
| 10Y | 0.9000% | (+3.50bp) |

## 9. 주요뉴스

[해외]

\* 중국 10월 달러화 기준 수출, 예상치(-5.7%)보다 부진한 전년 동기 대비 7.3% 감소...7개월 연속 감소

- 달러화 기준 수입 역시 예상(-1.1%)보다 줄어든 전년대비 -1.4%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\$490억6천만을 기록해 전달 흑자 \$518억 하회

- 이같은 수출의 부진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... 제조업 경기 지표가 실물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 아닌 단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

\*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,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12월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발언

- 고용시장 성장이 긍정적이며 전반적인 경제 활동도 올해 초 약한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

#### [국내]

\* [보도해명자료]한국경제 11.07일자 「'IFRS17' 2021년 전격 시행...이대로 가면 보험사 9곳 퇴출」, 「[사설] IFRS 모범국 되려고 보험사에 '부채폭탄' 안겼나」 제하의 기사 관련

[http://www.kasb.or.kr/fe/bbs/NR\\_view.do?bbsCd=1005&bbsSeq=12007&currentPage=1&rowPerPage=10&ctgCd=&sortCds=&startDt=&endDt=&searchKey=1000&searchVal=](http://www.kasb.or.kr/fe/bbs/NR_view.do?bbsCd=1005&bbsSeq=12007&currentPage=1&rowPerPage=10&ctgCd=&sortCds=&startDt=&endDt=&searchKey=1000&searchVal=)

#### [기사내용]

- 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5&aid=0003680958>

- 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15&aid=0003680879&sid1=001>

□ 한국경제는 11.07일자 「'IFRS17' 2021년 전격 시행...이대로 가면 보험사 9곳 퇴출」, 「[사설] IFRS 모범국 되려고 보험사에 '부채폭탄' 안겼나」 제하의 기사에서

○“2021년 1월1일부터 국내외 보험회사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. IFRS17로 명명된 새 국제 보험회계기준 시행일이 이 날짜로 확정됐기 때문이다.”, “보험 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시기가 2021년으로 확정됐다.” 고 보도

#### [해명내용]

□IFRS4 2단계의 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,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시행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\* 이주열 한은 총재, 美 대선 관련 시장 안정화 대비 지시

\* 유일호 "한미 협력 지속...정책 공조도 강화"

\* S&P, KEB하나은행 신용등급 'A+'로 상향

\* 외인 채권자금 이탈에도 느긋한 당국...이유는

- 외국인 채권잔고가 연초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자금이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

-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장기투자자금으로, 단기 이슈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

- 만기도래 자금이 재투자로 연결되지않았지만 대기자금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

## 이 제한적이라는 해석

\* 스프레드 벌어질 만큼 벌어졌다...여전채 강세 거래

- 지난주 후반부터 금융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민간평가사 금리 대비 언더 5bp에 거래되며 수요가 되살아나는 모습

- 절대금리 상승으로 캐리 매력이 커지면서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어

## \*\*금일 예정 지표\*\*

[미국 대통령 선거 2일차]

[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]

[태국 / 폴란드 / 뉴질랜드 기준금리 결정]

미국-9월 도매재고(MoM) (예상:0.2%, 이전:0.2%)

-EIA 주간 원유재고

중국-10월 CPI(YoY) (예상:2.1%, 이전:1.9%)

-10월 CPI(MoM) (이전:0.7%)

-10월 PPI(YoY) (예상:0.8%, 이전:0.1%)

한국-10월 실업률 (예상:4.0%, 이전:4.0%)

영국-9월 무역수지 (예상:-11.20B, 이전:-12.11B)